



임마누엘장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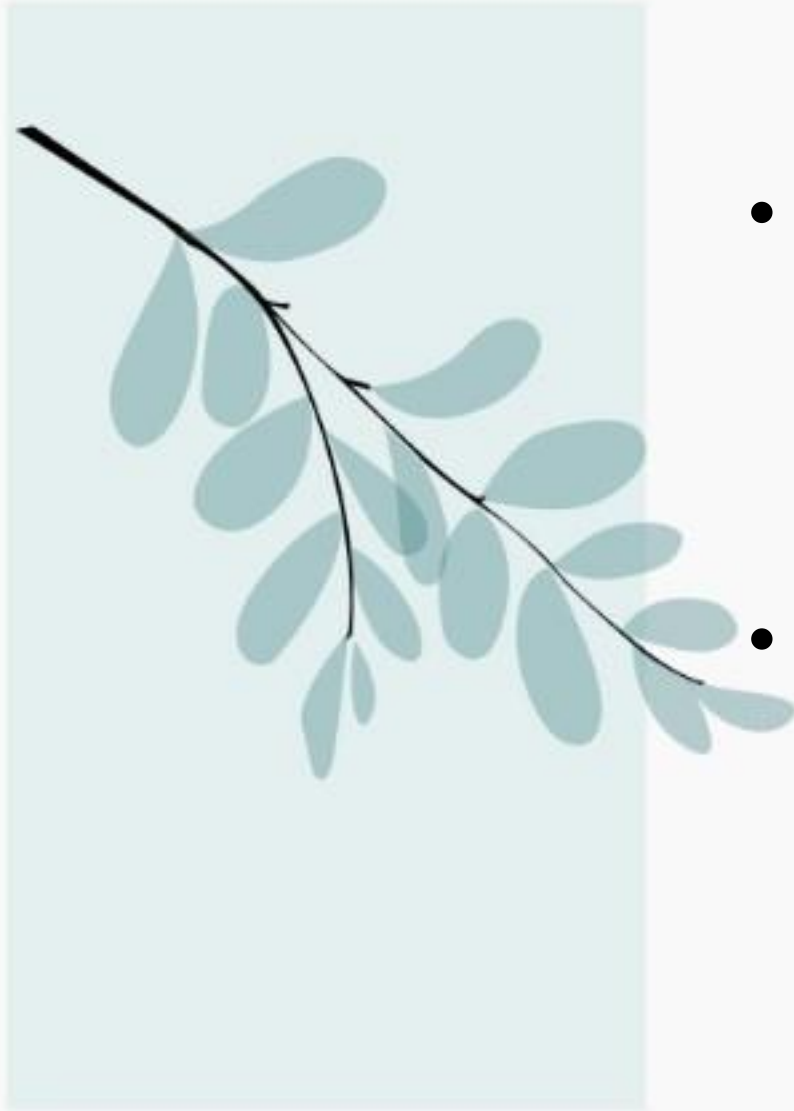
목장 나눔지

3월 17일 말씀



1부 : 자녀들과 함께 (Olive Blessing)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128:3



- 찬송가

212 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87 장 예수 앞에 나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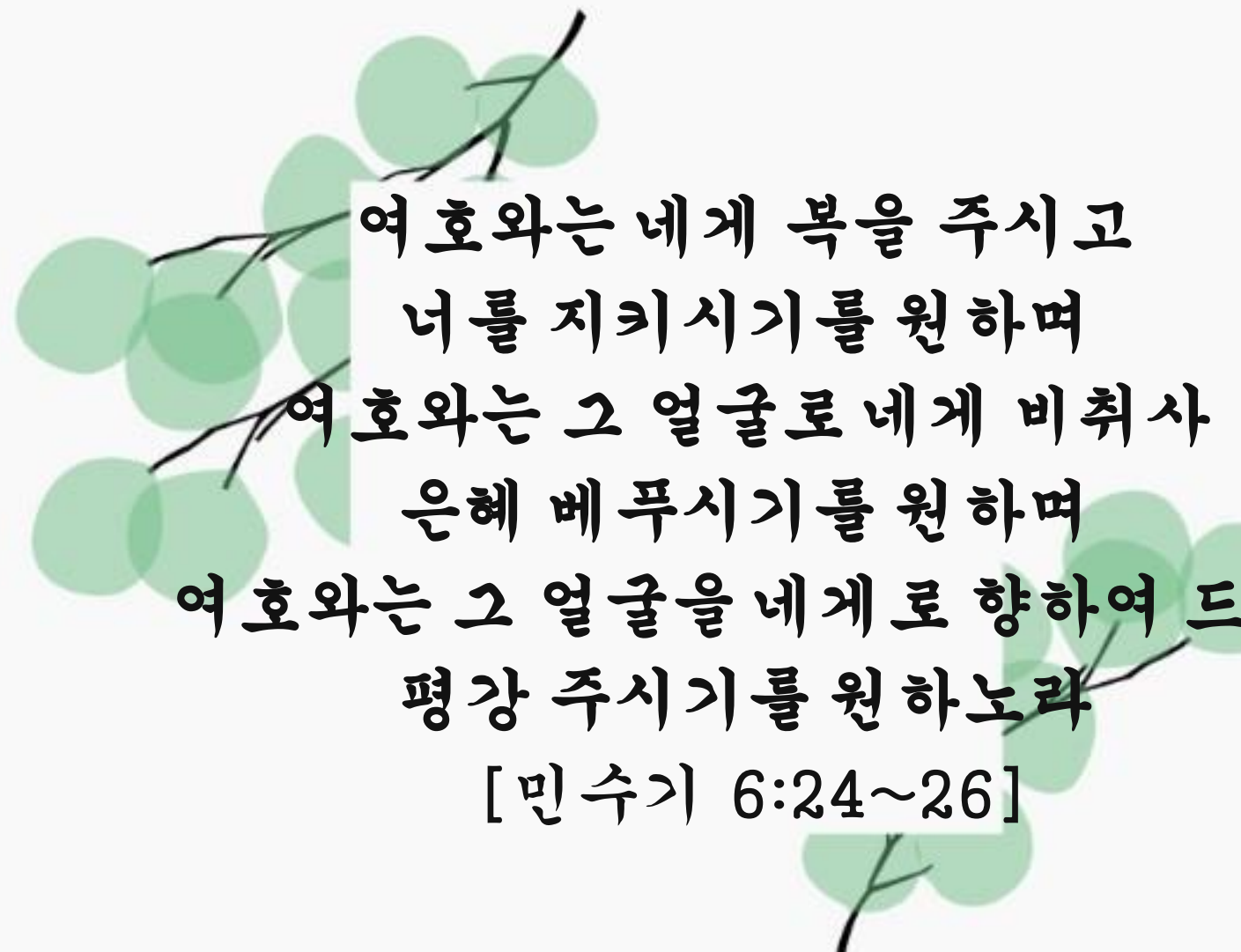
- 기쁨으로 찬양

81 장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82 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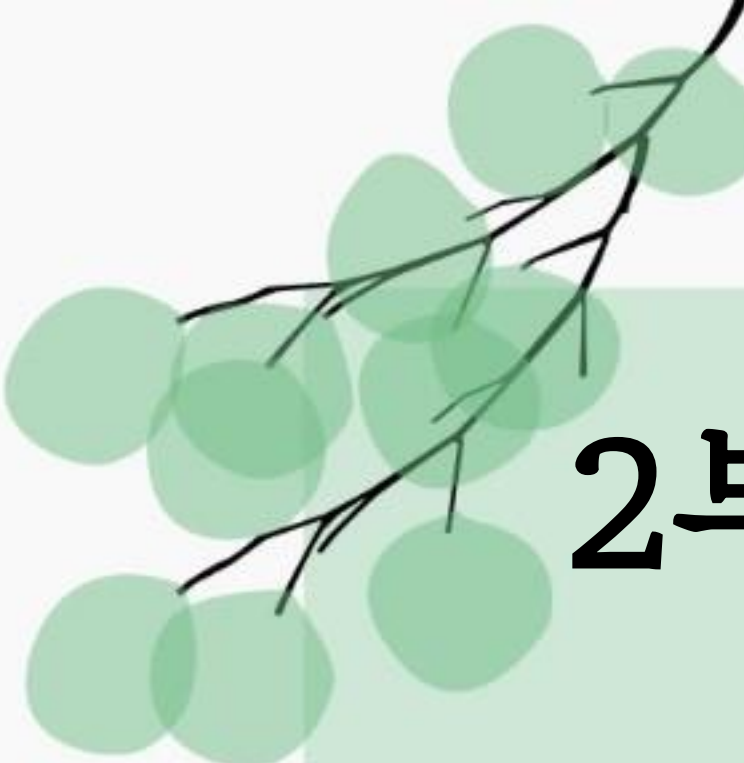


Question to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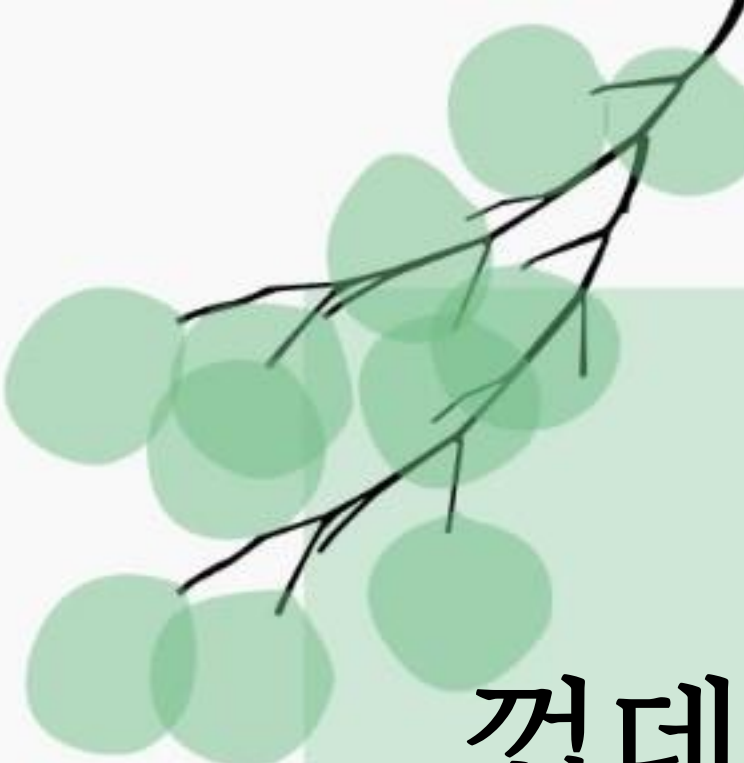
- 1) How God gracious to you in last week ?
- 2) What is your grateful things to God ?
- 3) What could we pray for you ?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2부 : 따로 모여서



성경봉독

Passage

꺾데기 신앙의 위험성

삼상6:1-16



- 1 여호와와 그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지 일곱 달이라
- 2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 3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4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7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젓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 여호와와 그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0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젓 나는 소 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1 여호와와 그의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12 암소가 벤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벤세메스 경계선까
지 따라 가니라



13 벤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밭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14 수레가 벤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15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16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설교요약





오늘도
무사히



* 마음의 문을 열며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시대, 본질은 잊어버린 채 현상만 남아 있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진정한 위기는 바로 그런 때가 아닐까요?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을 자신만 모를 때, 그 때가 진정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야기를 다루는 사무엘상 4-6장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많은 교훈을 독자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 보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4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다


5장: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머물다

6장: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다



* 삶의 열매를 거두며

-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 “내 뒤통수를 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거든 탓하지 말고, 뼈아프더라도 내 뒤통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라”
-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패배를 맞이했을 때 내가 어느 길로 돌아가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 알맹이는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은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며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눔




1)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알맹이)보다는 껍데기에 치중하고 있는 면은 없으신지요? 만약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으실습니까?
다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삼상 4장~6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왜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는지요? 블레셋 진영에서 벌어진 일들을 어느 한 분이 대표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3) 하나님의 언약궤는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성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백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 소식

<https://epcsj.org/church-news>





3. 청원서 서명

- 주일예배 안내
- 3월 새가족 환영회
- 청원서 서명
- 상반기 단기선교자
- 모임
- 3월 VIP 담물 카페 안내
- 부활주일 유아세례
신청

- 캘리포니아의 다음 세대를 성정체성 혼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한 청원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일정: 3월 24일까지 매 주일 1, 2, 3부 예배 후 본당 로비
- 대상: 캘리포니아 유권자 등록하신 미국 시민권자



4. 2024년 상반기 단기선교자 모집

- 주일예배 안내
- 3월 새가족 환영회
- 청원서 서명
- 상반기 단기선교자
- 모임
- 3월 VIP 담물 카페 안내
- 부활주일 유아세례
- 신청


- 사역지: 스리랑카, 키르키즈스탄, 라오스, 프레즈노, 폴란드
- 사역기간: 5월부터 8월 사이
- 신청: 온라인 등록 및 본당 로비
- 문의: 단기선교부 부장 정돈희 donhee.jung@gmail.com



6. 부활주일(3월31일) 유아세례 안내

- 주일예배 안내
 - 3월 새가족 환영회
 - 청원서 서명
 - 상반기 단기선교자
 - 모임
 - 3월 VIP 담물 카페 안내
- 부활주일 유아세례
신청

- 신청대상: 생후 24개월 이하의 아기
- 유아세례 부모교육: 3월30일(토) 오전 10시 30분 Zoom Meeting
- 신청: 영유아부 곽은혜 전도사 408)540-8771



삶의 나눔



* 목원들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기도 응답 받았던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지난 주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주변에 계신 나의 VIP들이 누구인지, 그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합심 기도



- * 오늘 목장에서 서로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목장 안에서 비밀을 서로 지키며 기도합시다)
- *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 * 개인 혹은 목장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VIP를 위해서
- * 성경통독 일정 속에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